

# BTS, 빌보드어워즈 4관왕...“다이너마이트’ 목표 이뤘다”

### 팀 자체 최다 기록... ‘톱 셀링 송’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 첫 수상 ‘톱 소셜 아티스트’는 5년 연속... 시상식서 신곡 ‘버터’ 첫무대 선보여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음악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4관왕에 오르며 팀 사상 최다 수상기록을 다시 썼다.

BTS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듀오/그룹’(Top Duo/Group),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Top Song Sales Artist),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톱 셀링 송’(Top Selling Song) 등 후보에 오른 4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했다.

‘톱 셀링 송’과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올해 처음 후보에 올라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톱 셀링 송’ 부문에서는 BTS ‘다이너마이트’가 개비 배럿과 찰리 푸스의 ‘아이 호프’, 카디 비와 메건 더 스탈리언의 ‘WAP’, 메건 더 스탈리언의 ‘새비지’,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즈’를 모두 제쳤다.

BTS는 서울에서 화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했다. 리더 RM은 영어로 “이런 의미 있는 타이틀의 수상자가 돼 정말 영광”이라며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모두와 함께 신선한 활력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 상이 그 목표를 이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 본식에서 ‘다이너마이트’ 수상이 발표되는 순간 야외에 모인 관중들이 환호하기도 했다.

BTS는 본식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된 일부 부문 사전시상에서 이미 ‘톱 듀오/그룹’,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등 3개의 트로피를 확보했다.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저스틴 비

버, 메건 더 스탈리언, 모건 월렌, 위켄드 등 경쟁한 스타들과 겨뤄 트로피를 안았다.

‘톱 듀오/그룹’ 부문에서는 2019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올해에는 전설적 록밴드 AC/DC와 인디 팝 트리오 AJR, 컨트리 듀오 댄 앤 세이, 팝 밴드 마론5와 경쟁했다.

온라인 영향력 등이 반영되는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2017년 이래 5년 연속 수상을 이어갔다.

올해 이 부문에는 블랙핑크와 세븐틴, 필리핀 보이그룹 SB19,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 후보로 올랐으며 팬 투표로 수상자를 가졌다.

BTS 제이홉은 “5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라니, 이런 믿기 힘든 타이틀을 주셔서 아미와 BBMA에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관왕 수상이 모두 발표된 이후 BTS는 트위터 공식 계정에 “후보에 오른 4부문 모두 수상하는 영광을 만들어준 아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관왕(2019년)이 기존 최고기록이었지만 올해는 후보에 오른 4개 부문에서 상을 모두 휩쓸며 자체 최다 수상기록을 썼다.

이들은 2017년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토대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상을 받으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처음 입성했다.

이후 팝 시장에서 대폭 확대된 입지가 최근 시상식 성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첫 영어 싱글이자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는 독보적인 판매량을 보이며 ‘톱 셀링 송’과 ‘톱 송 세일즈 아티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음악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4관왕에 오르며 팀 사상 최다 수상기록을 다시 썼다. /연합뉴스

스트’ 부문 후보에 첫 진입하는 동력이 됐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빌보드 차트에 기반해 시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의 차트가 반영됐다.

이날 엠넷 국내 중계 진행을 맡은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는 “BTS의 인기가 실제 수치에서 증명됐다는 것”이라고 수상의 의미를 짚었다.

BTS는 이날 시상식에서 지난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의 최초 무대도 선보여 전세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작가 겸 모델 파드마 락슈미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 앨범을 5장이나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팬덤) ‘아미’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 4관왕의 주인공”이라며 BTS를 소개하자 환호성이 울렸다.

BTS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실제 시상식의 흐름을 압축한 퍼포먼스로 현지에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대기실에 등장한 정국이가 무대 세트와 나와 휘파

람을 불며 멤버들에게 합류하고, 이어 빌보드 뮤직 어워즈 레드카펫을 재현한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동선을 선보였다.

검은 슈트 차림의 BTS 멤버들은 유연하면서도 파워풀한 안무를 보여주며 군무와 개인적 매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후 반짝이는 미러볼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시상식 무대에서 클라이맥스를 연출했다.

RM이 랩을 하는 대목에서는 뮤직비디오에서처럼 멤버들이 몸으로 ‘ARMY’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 태진아, 신곡 ‘공수래공수거’로 데뷔 50주년 활동



가수 태진아.

### 트로트와 국악 어우러진 노래 가야랑이 가야금·아쟁 연주

가수 태진아가 가수 인생 50주년을 맞아 새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24일 태진아의 데뷔 50주년 기념 앨범 ‘공수래공수거’의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앨범 발매일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소속사는 “이번 앨범 표지 사진 공개를 시작으로 태진아는 본격적으로 데뷔 50주년 기념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앨범에 실린 동명 타이틀곡은 태진아가 작사하고 아들인 이우가 작곡한 곡으로 트로트와 국악이 어우러진 노래다.

쌍둥이 자매 그룹 가야랑이 가야금과 아쟁 연

주에 참여해 애절한을 더했다.

이 노래 외에도 태진아의 대표 히트곡인 ‘옥경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미안 미안해’, ‘사모곡’ 등 19곡을 CD에 수록했다.

이와 별도로 대표곡과 리메이크곡 59트랙을 담은 USB도 제작했다.

1972년 작곡가 서승일의 권유로 ‘내 마음 급행열차’를 내며 데뷔한 태진아는 이듬해 ‘추억의 푸른 언덕’으로 MBC 10대 가요제에서 인기 가수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발표한 몇 장의 앨범이 흥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뒤 미국으로 건너갔다.

귀국 후 1989년 ‘옥경이’가 전국적으로 크게 히트하면서 재기에 성공했고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았다. 최근까지도 ‘사랑은 돈보다 좋다’, ‘진진자라’ 등 여러 신곡을 냈다. /연합뉴스



### KBS 1 예능 ‘운동 맛집’ 26일 첫선

KBS 1TV는 의뢰인의 주문에 맞춰 운동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새 예능 프로그램 ‘운동 맛집’이 오는 26일 첫선을 보인다고 최근 밝혔다.

‘운동 맛집’의 사장으로는 개그우먼 박미선이 나설 예정이며,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은 팀장, 개그맨 허경환은 사원이 되어 의뢰인을 찾아가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장기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거부감·불편증부터 체중증가까지 다양한 고민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26일 오후 7시 4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어서와... 빌푸네 밥상’ 7월 첫방

MBC에브리원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빌푸네 밥상’(이하 ‘빌푸네 밥상’)이 오는 7월 8일 첫 방송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빌푸네 밥상’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핀란드 4인방 빌푸, 빌레, 사미, 페트리가 한식당을 열기 위해 한국에서 한식 전문가들을 만나는 모습을 그린다.

더불어 전수받은 비법을 바탕으로 대구 지역에 4일간 식당을 연 핀란드 4인방의 식당 운영기도 함께 담는다.

7월 8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